

# 다이빙 예상밖 선전·경영 한국신 5개...한국수영 희망 쏘다



양재훈 개인종목 유일 기록경신  
김서영 첫 경영 결선도 수확  
다이빙 김수지 유일한 메달

‘대한민국 수영이 아쉬움 속에서도 미래를 봤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8일 폐막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른 대한민국 선수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대회를 마감했지만,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영 선수단은 5개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여자 자유형 계영 400m(이근아·정소은·최지원·정유인), 남자 자유형 50m(양재훈·강원도청)·남자 계영 800m(이유연, 장동혁, 황선우, 이호준)·혼성 계영 400m(양재훈, 이근아, 정소은, 박선관)·400m 여자 혼계영(임다솔, 백수연, 박예린, 정소은) 등이다.

대회 첫 번째 한국신기록은 지난 26일 양재훈이 출전한 남자 자유형 50m에서 나왔다. 양재훈은 22초26로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2015년 양정두가 기록했던 한국 기록(22초 32)을 0.06초 앞당겼다. 개인종목에서는 유일하게 기록경신에 성공했다.

단체에서도 4개의 한국 신기록이 탄생했다. 수영연맹이 5월 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한 달 뒤인 6월에 국가대표를 확정짓는 시점에서 선수들의 훈련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기록이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회에서 경영 결선에 오른 유일한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김서영은 지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28일 막을 내렸다. 한국신기록을 세운 선수들. 남자 계영 800m 출전한 이유연, 장동혁, 황선우, 이호준(왼쪽), 여자 계영 400m 이근아, 정소은, 최지원, 정유인(왼쪽 두 번째 위), 혼성 계영 400m 양재훈, 이근아, 정소은, 박선관(왼쪽 두 번째 아래), 남자 자유형 50m에선 양재훈(왼쪽 세 번째), 여자 혼계영 400m 임다솔, 백수연, 박예린, 정소은(맨 오른쪽).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 제공>

22일 주 종목인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6위에 올랐다. 폐막일인 28일 치른 개인혼영 400m 경기에서는 10위에 그치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김수지(울산시청)는 개최국 노메달의 수모를 벗겨줬다. 그가 획득한 동메달은 한국 선수단의 유일한 메달이었다. 김수지는 지난 13일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 결선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이는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나온 한국 다이빙의 첫 메달이었다. 전체 종목으로 따져도 박태환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두 번째 메달리스트다. 남자 다이빙의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도 1m, 3m 스프링보드에서 4위에 오르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했다.

비록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후 타 종목에서 메달획득에 실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지만, 자국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혼신을 다한 경기를 펼쳐며 경기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 “후배들이 기회는 또 온다, 더 큰 미래 보고 나아가자”

광주수영대회 홍보대사 성훈  
경기장 찾아 한국 선수들 응원

“광주 이번 대회 개최가 큰 의미”

“후배들이 기회는 또 온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배우 성훈(사진)이 지난 26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남부대 마켓스트리트에서 팬 사인회를 가진 뒤 호주와 헝가리의 여자 수구 동메달 결정전을 관람했다.

성훈에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홍보대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대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한때 성훈이 꿈꾸기도 했던 무대다.

성훈은 2002년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접영 5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한 촉망받는 수영선수였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기록이 떨어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수영 선수의 길에서 벗어나야 했다.

원하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성훈은 지금 배우로 또 다른 삶을 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성훈은 “연예인이 아



그는 홍보대사가 아닌 선배의 시선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고된 훈련과 치열한 경쟁의 순간을 알기에 안쓰러움이 컸지만, 자신도 시련의 시간을 겪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후배들에게 ‘다음 기회’와 ‘또 다른 길’을 이야기했다.

성훈은 “여자 자유형 800m, 남자 1500m처럼 10여 분을 뛰기도 하고 짧게는 20초 초반에 경기가 끝나기도 한다. 한순간이지만 열심히 후회 없이 경기를 해야 한다”며 “결과에 후회만 하지 말고 반성도 하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 좋겠다. 기회는 앞으로 또 온다”고 말했다. 또 “수영 인생을 살았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수영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다. 앞으로도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이번 대회를 끝낸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의 ‘맛’ 중 것같이 가장 인상적이라는 성훈은 “광주 올 때마다 시민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여울 기자 wool@

## 여자 혼계영 400m 한국 신기록 세우며 ‘유종의 미’

임다솔·백수연·박예린·정소은  
종전 기록 1초39 앞당겨

한국 선수단이 마지막 경기였던 여자 혼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28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혼계영 400m 예선 경기. 임다솔(21·아산시청)-백수연(28·광주시체육회)-박예린(20·강원도청)-정소은(23·서울시수영연맹)으로 구성된 한국 혼계영 대표팀은 1초 5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렀다.

한국팀은 4분03초38을 기록하며 1초 1위로 예선 경기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산하, 백수연, 이은영, 최혜민으로 구성된 광주시체육회팀이 세운 4분04초77을 1초39 단축,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한국 신기록 수립의 기쁨도 잠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남은 조의 경기를 지켜보며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선결과 전체 13위가 되면서 12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행 티켓을 거머쥘 데는 실패했다.

선수단에는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만연니 백수연은 “이 멤버로 뛰는 게 흔

치 않은데 함께 해 의지가 많이 됐다”면서 “두 가지 목표(한국 신기록, 올림픽 출전)를 다 이루지는 못해 아쉽지만, 각 분야 최고들과 함께 팀을 이뤄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지만, 결선처럼 뛰었다. 함께 된 네 명의 이름으로 기록을 세워 기쁘다”고 덧붙였다.

정소은은 “출전한 6개 종목 하나 하나 소중했고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날이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며 “다음에도 같은 멤버로 뛰게 된다면 올림픽 출전을 이뤄내 국민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 한빛원전 4호기 공극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번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조사과정에서 최대 깊이가 157cm로 확인된 공극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 공극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 여부를 떠나, 건설 당시에 철저한 시공감독과 감리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케 한 점에 대해서 원전 운영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고, 모든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은 콘크리트 공극에 대한 철저한 추가조사, 구조물 건전성평가 및 완벽한 정비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 운영에 대한 많은 심려와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